

1. 교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의 여러 모습에 실망한 경험이 있다면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사람들과 부딪쳐야 할까?”라는 의문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출석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도, 성경은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건물에 나가는 행위’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믿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인과 부딪힐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성숙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서로’라는 단어 안에는 반드시 타인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용납하는 과정은 때로 나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돌아보게 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사랑과 용서, 섬김을 배워가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나 부조리를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역시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에 위선과 차별, 권력 남용이나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회니까 참아야 한다”며 덮어두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니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과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공동체 자체가 필요 없다”는 또 다른 극단을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출석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 성격까지 온전히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교회 때문에 지쳐 계시다면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한 공동체의 실패 때문에 공동체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서로를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천천히 찾아가십시오. 교회가 완벽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신앙은 혼자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교회'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건물, 예배, 사람, 공동체, 하나님 등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

→

- 교회나 교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나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

- “신앙은 혼자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믿음입니다.”이 문장을 읽으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

-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성향을 가진 지체를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모범은 무엇일까요?

→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회복을,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혼자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